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평가 연구*

장은섭**

<차 례>

Ⅰ. 서론
Ⅱ.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요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Ⅴ. 결론

Ⅰ. 서론

근래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라 할 만큼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교과서 제도는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견해와 해석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고,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정책 자체로서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간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은 후자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국정과 검·인정제가 각 시대와 정권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해왔다.

특히, 그 동안의 국정제의 강화는 정치 체제에 따른 통제와 밀접한 관

* 이 논문은 제 49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2011. 09.0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토론과 비평을 해주신 안용순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만경고등학교(jjangjoy@hanmail.net)

련이 있으며 아울러 투명하지 못한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입학시험 제도 또한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교육과정의 획일적인 해석과 지나친 정부의 통제일변의 교과서 체제로는 더 이상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와 그곳에서 보여주는 양상들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일 것이다.

관련하여 국어교과서의 경우도 2007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2008년 8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고시에 의거하여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았던 고등학교 국어・도덕・국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국정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라 할 만하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체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교과서 내용의 질적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급변하는 정보화 중심의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명분으로, 때로는 사교육의 광풍에 맞선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학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는 공급자 측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수요자 모두 상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 및 연구를 강조하고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교과서의 개발 및 연구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려고 해도,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집하고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가 대체로 공급자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포함한 집필기준과 평가기준 및 도구들이 해석되고 반영되다 보니 수요자인 교사와 학생에게 주어진 교과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같은 수동적 교과서관이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습을 온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에서 교과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통해 교수·학습을 수행하는 학생과 교사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일환으로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어떠한지, 또 교과서 개발이나 선정 시 교사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요구

교과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구체화되어 교실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가 수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한다면 당장 교육의 질이 교과서의 질에서 판가름난다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공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교과서 제도라는 교육적 장치에 힘입은 바 크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수·학습내용을 단일한 체제의 교과서라는 틀에 담아 안정적으로 개발·제작·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시기에 따라 조금 씩은 다를지라도 교육과정의 내용·성격·목표·방법·평가 등의 내용이 적절히 잘 반영되고 구현된 교과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은 교육을 창출해 내는 원천적인 힘이 교사에게서 나온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세태를 돌이켜보면 ‘교육의 질은 교과서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고 해야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또는 수업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을 개별적이지만 교과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수업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덧붙여 실제 수업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 정도가 교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과 그 방식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교사가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교사의 선택보다는 그 교사가 선택한 교과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노명완, 2004 : 16~17).

국어교과서의 경우 2007년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이전에는 국가가 직접 제작하거나 위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고 저작권을 갖았던 국정제체재하에 있었고 2008년 교과서 도서 고시 이후에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교과부에서 제시한 각종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검정제가 실시되고 있다. 검정제의 경우 민간의 저작자들이 교육과정의 해석을 달리하여 자유롭게 교과서의 내용을 선정하여 집필한다는 점에서는 국정제와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국가나 국가가 위임한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제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양화되면서 학교 교육 내용과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스스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의 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과교육 전문가들은 물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된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요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김진영 외, 2010 : 12). 이인제(2009)는 특히 국어교과야 말로 학생들의 창조적인 국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사회·학문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적 경험이 꼭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표 1〉 국어교사와 학생들의 국어교육과정과 국어교과서에 대한 반응[1)]

항 목	국어교사들의 반응	학생들의 반응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를 정할 때 누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까요?	❶ 국어교육학자들(60%) ❷ 국어국문학자들(22.8%)	❶ 중・고등학생들(43.4%) ❷ 대학의 학자들(26.0%)
국어수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❶ 교과서(79.1%) ❷ 참고서(8.1%)	❶ 참고서와 문제집(46.1%) ❷ 교과서(37.8%)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❶ 단원순서에 따르되, 학습활동은 재구성함(41.3%) ❷ 교과서에 충실함(31.4%)	❶ 교과서에 충실함(40.9%) ❷ 단원순서에 따르되, 학습활동은 재구성함(18.2%)

위의 표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행위 주체에 대한 이견이다. 표의 첫 번째 항목에서 보듯이 국어교육의 성격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대상으로 꼽은 것은 다름 아닌 학생 자신들이다. 이것은 국어교사가 1, 2 순위 모두 교사 자신을 배제한 채 국어교육 및 국문학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과는 현격히 다른 양상이다. 국어교육의 주체성과 관련지어 능동적 역할이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되짚어 본다면, 교사들은 스스로가 현장교육 전문가이면서도 국어교육에서 한 발 물러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국어교과서 위상에 대한 이견이다. 교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익숙해지는 교육 환경과 수시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의 혼란함 속에서, 적극적인 이행자의 위치가 아닌 수동적인 위치에서 주어진 교과서, 만들어진 교과서에 자신도 모른 체 구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은 교과서에 대한 의존(37.8%)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교사들처럼 형식에 얽매여있지는 않다. 입시체제의 압박감과 교과서에 대한 쏠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내외적인 학습 부담감들이

1) (김주환, 2011) 국어교사 : 122명, 타 교과 교사 : 141명, 대학생 : 95명, 중・고등학생 : 196명, 일반사회인 : 128명, 총 6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교과서보다는 보충교재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질 높은 교과서의 제작을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에 앞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협의, 그리고 실질적인 교과서 연구자들의 집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검정제도의 절차상,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기본계획 수립 이후 민간 저작자의 교과서 개발 및 연구 그리고 정부로부터 교과서 검정을 위임받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심사와 최종 합격본 공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걸쳐, 교육 수요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의견수렴과정이나 공청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어있지 않다[2]. 물론 민간 참여업체에서 나름의 의견수렴과정을 밟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으나 이것이 따로 관계 당국의 지침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가장 최근의 2009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교과용 도서 고시 문제로 불거진, 교과서의 학교 적용시기에 대한 논란이다. 이 내용을 2007개정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서들의 현장 적용시기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2007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 비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7 개정	02.28 고시	교과서 제작 →	⇨	교과서 검정	중 2 전 교과 고1(공통교과) 적용	고 2 (선택 교과) 적용	
2009 개정			12.17 고시		중1, 고1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 제작 →	중2, 고2 교육과정 적용	중3, 고3 교육과정 적용. 중·고교 교과서 적용

위의 표를 통해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 첫째, 2009개정 교육과정이 20011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서 본래 2014년부터

2)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한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 자료집, p.20 참고.

적용하려고 했던 교과서들이 1년 앞당겨진 2013년부터 현장에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앞선 2007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한 과거 통상적인 교과서 개발에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시간이 7~8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특히, 실제 교과서 집필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예상된다. 둘째, 2011부터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사항인 교과 집중이수제 운영에 따라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각각 3년 치 교과서를 한 번에 제작해야한다는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과서 연구 및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서 제작기간을 대폭 축소한 것은 교과서 제작과정에서 불거질 제반 문제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안일한 인식에게 비롯되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질 높은 교과서는 뿌려두면 적당한 시간 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손쉬운 부산물이 아니다. 당국의 철저하게 준비된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고 공급자들이 교수·학습의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구현할 수 있을 때에 완성될 수 있는 값진 결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정체제에서 검정체제로 변화한 이후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평가를 통해, 교과서를 개발할 때 그 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요자의 요구와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어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2. 교과서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평가는 어떠한가?

3. 교과서에 학생과 교사가 반영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4.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평가가 상반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대상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연구자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전국의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08명과 국어교사 81명으로, 이 중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생용 부적격 설문지 90매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 학생 및 교사의 지역적 분포

설문 대상	지 역	인 원 (%)	비 고
학 생	서울 및 수도권	208 (22.6)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부적격 설문지 90매는 사전 검토과정에서 제외함.
	중·소 도시	580 (63.2)	
	읍·면 지역	130 (14.2)	
	합 계	918 (100.0)	
교 사	서울 및 수도권	27 (33.3)	
	중·소 도시	32 (39.5)	
	읍·면 지역	22 (27.2)	
	합 계	81 (100.0)	

〈표 4〉 연구 대상 교사들의 교육경력 분포

교육 경력	인 원 (%)	비 고
5년 미만	31 (38.3)	
5년 이상 ~ 10년 미만	19 (23.5)	
10년 이상 ~ 20년 미만	18 (22.2)	
20년 이상	13 (16.0)	
합 계	81 (100.0)	

조사방법은 교과서 평가영역별 평가기준과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의 교과서 평가기준은 좋은 교과서를 판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교과서의 개발 단계, 심사 및 검정 단계,

선정 및 채택 단계, 마지막으로 교과서 활용 단계의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설문지로 활용한 교과서 평가기준은 현장교사와 교육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수정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보고서 내용 가운데 연구자가 실제적인 수준에서 학생과 교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의 구성은 크게 '교육과정, 학습내용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활동, 학습평가, 표현표기 및 외형체제' 다섯 가지로 세부항목은 학생용 24개의 선택형 질문과 교사용은 26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3)]

Ⅳ.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1. 연구 결과 분석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SPSS Win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학교에서 채택한 국어교과서에 대해 전체적인 만족도(이하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학생	2.9	12.3	54.0	29.0	1.6
교사	2.5	11.1	44.4	38.3	3.7

첫 번째로 눈여겨 볼 부분은 표에서 제시한 국어교과서에 대한 전체 만족도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학생과 교사집단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평가

3) 진재관 외(2009)의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 Ⅲ』,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보고서 내용 가운데 pp.82~83의 교과서 평가기준 및 항목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학생과 교사 차례대로 15.2%, 13.6%)보다는 만족스럽다는 평가(30.6%, 42.0%)가 높았다. 학생들은 교사집단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도 높고, 상대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는 10% 이상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수준과 그에 따른 욕구가 교사들보다도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만족도를 '보통'이라고 밝힌 사례가 교사나 학생 모두 과반수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교과서에 대한 평가가 '보통이다'라는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현 실태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교과서 개발과 연구과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통에 대한 해석을 '괜찮다'라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수업자료이며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만족스러움을 줄 때까지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 6〉 가장 만족스러운 평가 영역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학생	전체구성체제 (17.6)	내용수준의 적정성 (16.2)	편집디자인 및 내구성 (10.8)
교사	전체구성체제 (29.6)	자기주도적 학습내용 (18.5)	학습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16.0)

현재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영역을 꼽으라는 질문에 학생과 교사집단 모두 '전체구성체제'를 꼽았다. 여기서 전체구성체제는 교과서 구성요소(차례, 참고자료, 용어해설, 부록 등)와 학습요소(학습목표, 도입, 본문, 정리, 그림 및 도표, 참고자료 등)가 충실하고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이것은 그 동안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국정체제하의 일률적인 내용 구성 및 부족했던 학습활동 자료와 그림 및 도표 등 다양하고 참신한 지면 구성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나, 검정체제로 바

뀐 후에 전체적인 교과서 구성요소와 학습요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집단의 경우 만족스러움을 드러낸 자기주도적 학습내용과 학습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부분은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에서소홀하게 평가되었던 요소들이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전환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즉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의 경우, 학습 단계별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안내 및 지시사항이 이뤄지고 학습 내용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 및 관련 활동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평가에 반영되어 있다. 학습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부분도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교과서 내외의 참고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 요인일 것이다.

〈표 7〉 가장 불만족스러운 평가 영역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학생	학습동기유발 (18.4)	다양한 평가활동 (11.3)	자기주도적 학습내용 (10.0)
교사	내용수준의 적정성 (22.2)	내용의 정확성 (19.8)	종합적 사고능력 (18.5)

<표 7>의 항목에 대한 결과는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다. 학생들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어찌됐건 교과서 내용 및 구성방식이 지루하고 딱딱하기보다는 흥미 있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물론 제재부터 발문, 학습내용과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 내용이 흥밋거리 위주로 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잠재되어있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용면에서 알차고 좋은 교과서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보고서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다. 덧붙여 학생들이 다양한 평가활동과 자기 주도적 학습내용이 아쉽다고 밝힌 부분을 보더라도 평소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수업에 방관자이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관련 자료를 탐색하며 또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집단이 보인 반응의 경우 학생의 경우보다는 좀 더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교수자 입장에서 원칙적인 내용을 잣대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과서의 조건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및 이론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고 학습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가 최우선적인 평가기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표 6>에서 학생들로부터 두 번째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내용수준의 적정성'항목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평가 받았다 점이 눈에 띈다. 현장의 교과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교과서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온 교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교과서가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서 특별한 기준 없이 교과서 개발자나 연구자들의 직관에 의해 관련 제재가 선정되고 학습활동과 성취기준들이 제각각 설정되는 현재의 교과서 개발체제와 실태에 대한 우려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 및 선정하거나(교사) 교과서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학생),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영역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학생	학습동기유발 (23.9)	내용수준의 적정성 (13.6)	학습 분량의 적절성 (10.9)
교사	내용의 정확성 (22.2)	내용수준의 적정성 (17.3)	연계성 및 계열성, 참고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17.1)

<표 8>의 항목은 교사와 학생이 실제로 교과서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수요자의 적극적인 요구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앞선 <표 7>의 결과와 더불어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학생과 교사들의 반영 요구를 종합하여 몇 가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요구는 교과서를 매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주변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철저하게 학습자인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즉 수업시간에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본인들의 관심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불만족스럽다는 영역으로 꼽은 학습동기유발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 싶은 첫 번째 조건으로 꼽은 것도, 학생 본인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단원 도입이나 발문의 효율성을 강조한 내용구성방식에 대한 요구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2, 3순위로 꼽은 내용 수준의 적정성과 학습 분량의 적절성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개념이 제시되어야 하고, 학습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수업에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케 하고 공급자 측에게 제기할 만한 내용이다. 이것은 검정체제의 교과서라 할지라도 여전히 학생들의 입장에선 현재 교과서의 내용수준과 구성형식, 학습의 분량 측면에서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교사들의 요구는 교수·학습 도구와 매체가 발달하고 교단의 선진화를 통한 수업 방식이 예전에 비해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교사들이 수업에서 교수자 주도의 역할과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중요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생과 교사의 평가에서 '내용수준의 적정성'영역을 제외하고,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및 이론이 정확하고,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적절한 소프트웨어나 교육매체, CD자료 등이 충분하고 유용한지가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과 교사 두 집단 모두 수업시간에 서로 맡고 있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진행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업을 장악하고 조율을 책임지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다음의 표부터는 교과서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평가 영역별로 크게 묶어 평가 기준별 학생과 교사들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표 9〉 하위 평가 기준별(교육과정) 학생과 교사 만족도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대상	교과서 평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교육 과정	전체 구성 체제 (학습목표, 도입, 본문, 정리, 참고자료의 충실한 구성)	학생	0.8	10.9	46.9	36.3	5.1
		교사	1.2	4.9	23.5	**49.4**	**21.0**
	학습 분량의 적절성 (단원별로 균형있고 전체 시수가 적절한지 여부)	학생	1.6	13.6	44.6	34.7	5.4
		교사	1.2	4.9	30.9	**55.6**	**7.4**

<표 9>의 교육과정 평가영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체구성체제나 학습 분량의 적절성 기준 모두 학생들보다 교사의 평가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체구성체제의 만족도(만족과 매우만족 평가를 합한 수치-아래부터 계속 적용) 70.4%는 교과서 전체 평가 항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학생과 교사집단간 만족도 차이가 22.9%~29.0%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교사들의 경우, 이번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검정체제의 교과서와 과거 수업경험을 통해 익숙한 국정교과서라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의 고등학교 국정교과서가 갖고 있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틀이 적용되었다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정교과서와 비교해서'라는 가정과 더불어 검정체제로서 교과서가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짜임새가 국정교과서 체제보다는 좀 더 충실하고 과거 다소 부담되었던 학습내용의 양 또한 단원별로 적절하게 조정되었다는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하위 평가 기준별(학습내용) 학생과 교사 만족도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대상	교과서 평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학습 내용	학습 내용 선정	내용수준의 적정성 (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내용)	학생	0.9	8.1	39.9	45.3	5.9
			교사	3.7	11.1	46.9	32.1	6.2
		정확성(제시된 개념 및 이론, 자료가 명확하고 분명함)	학생	1.1	6.8	44.0	40.1	8.0
			교사	2.5	4.9	28.4	58.0	6.2
		중립성(개방적, 균형적 관점)	학생	1.3	8.3	47.9	36.6	5.9
			교사	2.5	4.9	33.3	49.4	9.9
	학습 내용 조직	**학습동기유발**	학생	**4.4**	**25.3**	47.6	**19.4**	**3.4**
			교사	**2.5**	**19.8**	38.3	**30.9**	**8.6**
		연계성 및 계열성 (학습 내용 구성의 유기성)	학생	1.6	7.4	53.6	31.8	5.6
			교사	3.7	9.9	35.8	43.2	7.4
		시각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시각자료의 학습 내용과의 조화)	학생	1.6	8.6	49.0	36.3	4.5
			교사	3.7	2.5	37.0	40.7	16.0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 (학습단계별 안내와 지시사항의 명확성, 관련활동의 다양성)	학생	**2.9**	**17.3**	51.9	**26.0**	**1.9**
			교사	**2.5**	**22.2**	46.9	**24.7**	**3.7**

<표 10>의 학습내용 평가영역에서는 다시 학습내용 선정과 학습내용 조직으로 나뉘어 평가가 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학습내용조직 영역 가운데 학습동기유발에 관한 학생집단의 평가가 모든 교과서 평가영역 가운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사집단과 비교해 보면, 학생집단의 만족도는 22.8%에 불과한 데 교사집단은 39.5%에 이른다. 동일 기준의 불만족도 수치를 보더라도 교사집단은 22.3%, 학생집단은 29.8%로 '보통이다'에 반응을 보인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의 의견을 제외하고서라도 모든 평가영역 가운데 불만족과 만족의 수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경우라 하겠다. 반면에 교사는 만족도가 39.5%, 불만족이 22.3%로 만족도가 더 높게 평가된 것은 학습동기유발이라는 내용 조직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식이 뚜렷한 시각차이가 있

음을 드러낸 결과라 하겠다. 이것은 구체적인 학습 상황에서 동기유발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각각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한 내용 조직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차이가 의미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고 개선되기를 원하는, 학습내용선정 및 조직의 평가 기준이 자칫 실제 수업에서 교사 자신만의 잣대로 단정 지어질 경우에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반응이 전달되지 못하고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우려대로 된다면 수업에서 중요시되는 교사와 학생들의 활발한 인지적·정서적 상호작용이 피상적으로 전개될 우려 또한 커지게 것이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학습 내용 영역의 세부평가기준들 대부분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보다는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월등히 우세한 반면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은 만족과 불만족, 특별히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등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학습동기유발 항목에서 학생들의 불만족스러움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인 교사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 항목에서는 만족과 불만족에 반응이 비슷하게 엇갈린다는 점은, 그만큼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관련 활동의 다양성과 학습 안내가 부족하다는 평가일 것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공급자 측에서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표 11〉 하위 평가 기준별(교수·학습활동) 학생과 교사 만족도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대상	교과서 평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활동의 다양성과 실용성**(개별, 소그룹 활동, 미디어 활용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	학생	4.0	23.0	48.6	21.1	3.3
		교사	6.2	24.7	40.7	22.2	6.2
	학습 참고자료의 충실성과 유용성(교과서 내외의 참고자료, 교육매체, CD자료 등의 구현활동)	학생	7.8	20.5	45.8	20.7	5.2
		교사	9.9	14.8	30.9	25.9	18.5

<표 11>의 교수·학습 활동 평가영역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 평가기준 모두 학생들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만족스럽다는 의견보다 27.0>24.4%, 28.3%>25.9% 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비교해서 교사집단은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 주목을 끈다. 즉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성과 실용성 평가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30.9%>28.4%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항목인 학습 참고자료의 충실성과 유용성 평가에서는 학생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만족도가 44.4%>24.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일선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경험이 있는 교사라면 응당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으로, 실제 교사들은 교과서선정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상급기관인 교과부나 해당 관할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 심사를 위한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평가자료 및 기준을 제공받는다. 물론 학교 자체 적으로 담당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평가 및 선정 기준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한 교과서 평가 기준안을 놓고 선정을 위한 협의과정 가운데 교사들 입장에서 빠지지 않고 논의되며 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학습 참고자료의 충실성과 유용성 측면으로,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인쇄매체 및 온라인 참고자료, CD자료 등의 수업 보조 자료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간 출판사들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습 참고자료보다 교과서 채택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교사의 교수·학습 자료에 많은 공을 들이며 더욱 다양하고 쉽게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들을 제공한다. 교육 수요자의 중요한 두 주체인 학생과 교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이 공급자 측에서 가져야 할 최우선의 목표임에도 자의든 타의든 교과서를 완성할 즈음 천칭의 추는 아무래도 교사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학생들에게까지 교사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재비의 상승과 관련 깊을 것이다. 어쨌든 교과서 채택을 위해 교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생에게 다양하고 충실

한 학습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일 또한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표 12〉 하위 평가 기준별(학습평가) 학생과 교사 만족도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대상	교과서 평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학습 평가	**다양한 평가활동**(진단, 형성, 총괄평가 등을 선택형, 서답형, 수행평가 등으로 적절히 제시)	학생	4.2	17.4	51.3	23.6	3.4
		교사	**4.9**	**28.4**	38.3	**23.5**	**4.9**
	종합적 사고능력(문제 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사고력 등을 측정하고 스스로 점검 여부	학생	**4.5**	**22.2**	50.4	20.2	2.7
		교사	3.7	16.0	43.2	32.1	4.9

<표 12>의 학습 평가 영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한 평가활동에서 교사집단의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33.3%로 모든 세부 평가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학생들 또한 다양한 평가활동은 긍정적인 평가가 5.4%우세한 반면, 종합적 사고능력 평가에선 26.7%>22.9%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였다. 즉 학생들은 학습 내용 및 활동거리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학습동기유발을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학습 내용에 대한 다양한 평가활동과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탐색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동안 국정교과서 틀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교과서 전체 구성체제의 틀 가운데 학습목표의 제시와 도입, 본문의 진행 이후에 이뤄졌던 너무 단순화되고 형식적인 내용정리와 평가 측면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세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3〉 하위 평가 기준별(표현 및 외형체제) 학생과 교사 만족도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대상	교과서 평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표현 및 외형 체제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오탈자 없이 문장이 명료하고 어법에 맞는지 여부)	학생	1.4	6.5	37.1	37.9	17.0
		교사	6.2	3.7	22.2	56.8	11.1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줄 간격, 글자 크기, 지면구성이 안정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학생	2.1	6.2	36.7	39.1	15.9
		교사	1.9	7.4	16.0	66.7	8.0

<표 13>의 표현 및 외형체제 영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과서 평가 기준인 다섯 가지의 대분류 영역에서 가장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교사집단의 경우,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기준에서 67.9%,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 기준에서 74.7%로 모든 세부 평가기준 가운데 가장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평가도 54.9%, 55.0%로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표현 및 외형체제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학생은 7.9%, 8.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모든 세부 평가기준 가운데 두 집단 모두로부터 가장 일치된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이다. 이것은 각각의 평가 기준별로 분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기준은 학생집단은 물론 교사집단도 과거 국정교과서와 따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기회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검정 체제하의 새로운 교과서라는 점에서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한, 막연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당연히 표현 및 표기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 기준인 글자 모양과 크기, 다양한 표와 사진 등의 지면구성 부분은 가장 직접적으로 과거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개선된 시각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생과 교사집단 모두에게 안정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제작사의 높은 편집기술 숙련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표 14〉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집단의 상반된 시각차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대상	교과서 평가					t-검정 (유의확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교육 과정	전체구성체제(차례, 참고자료, 용어해설, 부록 등의 충실성)	학생	1.2	6.9	45.6	41.3	5.0	.000
		교사	3.7	4.9	18.5	59.3	13.6	
	전체구성체제(학습목표, 도입, 본문, 정리, 도표 등의 유성성)	학생	0.8	10.9	46.9	36.3	5.1	.000
		교사	1.2	4.9	23.5	49.4	21.0	
학습 내용 조직	학습동기유발	학생	4.4	25.3	47.6	19.4	3.4	.002
		교사	2.5	19.8	38.3	30.9	8.6	
	시각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	학생	1.6	8.6	49.0	36.3	4.5	.001
		교사	3.7	2.5	37.0	40.7	16.0	
	자기 주도적 학습내용	학생	3.3	19.8	46.4	25.6	4.9	.005
		교사	3.7	14.8	29.6	43.2	8.6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참고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학생	7.8	20.5	45.8	20.7	5.2	.004
		교사	9.9	14.8	30.9	25.9	18.5	

※ $p<0.05$값 기준.

<표 14>의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집단의 상반된 시각 차이는 설문지 세부 선택형 항목 학생용 24개와 교사용은 26개 문항 가운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부적절한 2 문항[4]을 제외한 24개의 공통문항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4) 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 가운데 교육과정 부합성을 묻는 '교과서 내용이 국어과목의 성격 및 목표에 부합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항목과, 학습내용의 연계성 및 계열성을 묻는 '단원 간 내용의 단순 중복 없이 학년간, 학교급간의 연계 및 계열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항목을 제외하였다. 실제로 학생용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에 실린 교사용 설문지에서 위의 2개의 문항을 제외하면 전체 문항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때 학생용 설문지를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어휘나 내용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바꾸지 않은 이유는 동일한 평가문항에 대해 두 연구 대상간의 이해와 해석의 초점이 달라질 경우, 자칫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반응을 비교할 때 동일한 질문이 아닌데서 비롯되는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을 실시한 내용이다.

그 결과 전체 24개의 세부 문항 가운데 6개의 평가항목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앞선 연구결과 분석내용을 참고로 하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6개의 문항 전체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고 교사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두 집단 간 세부 영역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었다.

둘째, 교과서 평가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상위 평가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과정과 학습내용조직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항목이 유의미한 시각 차이를 보여 특정 평가영역에서 학생과 교사의 시각이 두드러지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셋째, 교과서 평가 내용 가운데 '보통이다'라는 반응이 학생집단은 45.6~49.0%로 교사집단의 18.5~38.3%보다 모두 높은 수치를 보여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교과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국정교과서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일정 평가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스러움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동기유발을 위한 학습 제재 및 활동거리 구성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참고자료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2.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된 고등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세부 평가영역에 대한 반응들을 분석하였다. 교과서를 가장 가까이서 다루고 활용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보인 반응과 평가를 종합해 볼 때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첫째, 검정 국어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일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학생 15.2%, 교사 13.6%)보다는 만족한다는 평가(30.6%, 42.0%)가 높다는 점에서 검정체제로 전환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비교 대상으로 삼을 과거 국정교과서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질 높고 잘 갖춰진 교과서의 잣대로 삼기에는 아직 많은 보완할 점이 눈에 띈다. 게다가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보통이다'라고 밝힌 교사 44.4%와 학생 54%의 수치는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공급자 측에 전하는 소통의 요구와 조언의 메시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들이 바라는 교과서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에 대한 고민이다. 교사들은 각자 수업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현재 우리 교육의 여건 상 교수·학습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어진 한 시간의 수업목표를 위해 나아가 교육과정 성취를 위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수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당연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학습 내용과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들의 충실성과 유용성이 가장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적절하면서도 수업 분량이 부담없고 호기심을 충족해줄 수 있는 제재와 활동거리, 나아가 선생님의 도움없이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참고자료와 평가활동 등을 원한다. 그렇다면 두 집단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까? 다행히 교과서는 한 손으로 무언가를 잡기위해 나머지 한 손에 움켜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아도 된다. 교사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은 질 높은 교과서의 충족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것들 모두를 교과서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실현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즉 '~하는 대신에'에 가까운 사고보다는 '누구에게나'를 목표를 두는, 좋은 교과서에 대한 냉정한 잣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그렇다면 교과서와 관련된 우리 연구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과서는 여전히 수업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수업 자료이다. 국정 교과서가 획일적이고 통제일변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검정 교과서 체제가 시행되었지만, 그렇다고 과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검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처럼 여전히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편찬 기준과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또 한편으로 검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 만족스러운 교과서는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제대로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단지 주어진 교과서라는 수동적인 교과서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나 정부의 통제를 받는 민간 저작자들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학습을 온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에서 교과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 과정에서 교사는 물론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확대가 꼭 필요하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교사중심의 교과서선정위원회 심의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학부모의 참여 기회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고 요식적인 행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좀 더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 또한 교사가 교과서선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특별실이나 도서관에 교과서 전시를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명회를 거친 후, 설문 형식이나 스티커 투표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학생들의 진솔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수시 접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교과서의 꾸준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교과서 발행 출판사 및 검정과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 '교과서 오류 및 불만족스러운 내용을 자유스럽게 신고 및 건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센터'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 덧붙여 실제 교수·학습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에

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 수요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는 평가기준을 간략화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 제공되는 교과용 도서의 평가기준을 새롭게 정선하고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선정 시 학교 현장에 제공되는 교과부 및 교육청 주관의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세분화, 형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실제 교사들의 평가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평가 항목들만을 간략히 통합하여 모든 요소에 동일한 평가 수치를 부여하지 말고 교과서에서 좀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항목들마다 수준을 달리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현체이며 교수·학습 및 평가의 준거가 되는 핵심적인 교육내용이다. 모름지기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담아내야 하며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교육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여전히 수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학습 자료 또한 교과서이다.

그러나 그 동안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적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사실 질 높은 교과서에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는데 이때 의견수렴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교사와 학생들이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교과서의 개발 및 연구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공급자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포함한 집필 기준과 검정 기준들이 해석되고 반영되다보니, 수요자인 교

사·학생에게 주어진 교과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같은 수동적 교과서관으로 자리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학습권을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수요자 관점에서 교과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교육과정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교과서에 실린 특정한 지식일 필요도, 완벽한 기능과 태도를 실현목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단지 특정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수준에 맞게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지식 또는 기능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으면 된다. 즉 학습과 배움의 여건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교과서에 대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체제의 구비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 본 논문은 2011. 10. 28.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김주환(2011), “사회적 요구 조사를 통해 본 국어 교과의 정체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영 외(2010),『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준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검정교과서.

노명완(2004), “집필·검정 과정상의 문제점 개선 시급”,『교과서연구』42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pp.16~21.

유학영 외(2009),『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인제(2009), “핵심역량 강조시대의 국어 교육의 계획과 실행”,『국어교육』128호, 한국어교육학회, pp.1~46.

조난심 외(2009),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한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진재관 외(2009),『교과용 도서 평가연구Ⅲ』, 연구보고 RRC 2009-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록>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평가 연구

장은섭

최근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8년 8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국정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대체로 공급자 측에서 수요자인 교사, 학생에게 주어진 교과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같은 수동적인 교과서관이 지배적이었다. 이제부터라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학습을 온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의 교과서 접근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국어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918명과 수업을 담당하는 국어 교사 81명을 대상으로 선택형 설문지를 통해 검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어교과서에 대해 학생집단은 30.6%, 교사집단은 42.0%가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학생집단 15.2%, 교사집단 13.6%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평가 내용 중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학생 54.0%, 교사 44.4%가 보통이다라고평가한 점이다. 양쪽 집단 모두 과반수에 이르는 높은 수치로 이 반응을 공급자 측과 교과서 연구자들은 절대'괜찮다'라고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교육과정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즉, 교과서를 만드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는 체제와 태도가 필요하다.

【핵심어】 국어교과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국정교과서제도, 검정교과서제도, 교과서평가, 교과서만족도

<Abstract>

A Study on Students and Teachers' Evaluation for Highschool Korean Textbooks

Jang, Eun-seob

It seems the system for Korean textbooks has recently been progressive. It actually is on the verge of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change. In Aug 2008, the adapting system for Highschool Korean textbooks has been shifted to the authorization system, and it is expected to provide a positive result compatible with the desire to prevent some negative effects from the government-designation system.

Yet, textbooks in Korea has been all passive that textbooks supplied to or made for consumers such as teachers and students are dominant. Instead of being perspective of suppliers, approaches with consumer-centered aspect for textbooks which could assure learners' learning are needed.

This study has surveyed 918 highschool freshmen who are studying current Korean textbooks and 81 Korean teachers to examine how the authorized highschool Korean textbooks are being measured and responded by students and teacher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multiple choice questions. The results show that 30.6% of students and 42.0% of teachers were satisfied, and 15.2% of students and 13.6% of teacher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Korean textbooks. What is notable here is that majority of respondents(54.0% of students, 44.4% of teachers) said they are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textbooks. Suppliers and textbook researchers should never consider it as "It's OK". Textbooks are the medium of curriculum, which means what's

even more important than making textbooks is the attitude and the system to modify and supplement the textbooks by reflecting consumers' opinions on contents of it.

【Key words】 Korean textbooks, Highschool Korean textbooks, government-designation system, authorization system, textbooks evaluation, textbooks satisfaction

【부록】

국어 교과서에 대한 국어교사의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경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장은섭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반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교과서 집필 및 제작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설문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장은섭 올림
이메일 주소 : jjangjoy@hanmail.net
학교 전화 : 063-542-5722, 핸드폰 011-9626-5651

※ □안에 "V" 표를 하거나, 답을 써 주십시오.

■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교직 경력

□ ① 5년 미만 □ ② 5년 이상~10년 미만

□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 ④ 20년 이상

■ 학교의 소재지

□ ① 서울 및 수도권 □ ② 중·소도시 □ ③ 읍·면 지역

■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국어교과서

□ ① 비상교육 □ ② 창비 □ ③ 좋은책신사고 □ ④ 기타 ( )

■ 현재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는 평가항목을 살펴보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용 도서 평가연구Ⅲ』, 연구보고 RRC 2009-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2~83쪽 수정 인용.

평가 영역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과정		전체구성 체제	1. 교과서 구성 요소(차례, 참고자료, 용어해설, 부록, 찾아보기 등)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학습 요소(학습목표, 도입, 본문, 정리, 그림 및 도표, 참고자료 등)가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교육과정 부합성	3. 교과서의 내용이 국어과목의 성격 및 목표에 부합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학습 분량의 적절성	4. 학습 분량이 단원별로 균형 있고 전체 수업 시수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학습내용	학습내용 선정	내용 수준의 적정성	5. 학령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적합한 내용 및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정확성	7. 제시된 개념 및 이론이 정확하고 출처가 명확하고 정확한 도표(그래프, 그림, 사진, 지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중립성	8. 인물, 성, 종교, 이념, 민족, 계층, 지역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 또는 일방적인 견해가 없도록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학습내용 조직	학습동기 유발	9.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도입이나 발문이 제시되어 있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 및 구성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평가 영역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내용	학습 내용 조직	연계성 및 계열성	10. 단원 간 내용의 단순 중복없이 학년간, 학교급간의 연계 및 계열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학습의 내용 구성(본문, 활동 및 문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시각 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	12. 시각 자료는 학습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	13. 학습 단계별 안내 및 지시사항이 명확하고 학생 수준별로 학습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4.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및 관련 활동(인터넷 사이트, 멀티미디어, 정보 습득, 도서 읽기 등)들이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교수-학습 활동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성과 실용성	15.학습 주제에 적절하며 실생활과 관련하여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실현 가능한 학습 활동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6.개별 혹은 소그룹 활동, 미디어 활용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학습 참고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17.교과서 내외 참고자료(부록, 색인, 용어해설, 찾아보기 등은 충분하고 유용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18.교과서 외의 참고자료(교사용지도서, 워크북, CD자료 등)는 충분하고 유용한가?	①	②	③	④	⑤
학습평가		다양한 평가활동	19. 학습 단계에 맞는 평가 방법(진단, 형성, 총괄 평가 등)과 다양한 평가 유형(선택형, 서답형, 수행 평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평가 영역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평가	종합적 사고력 평가	20. 단순한 지식의 측정만이 아닌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하고, 학생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표현표기 및 외형체재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혹성	21. 오탈자가 없이 문장이 명료하며, 어법(표준어, 외래어, 띄어쓰기 등)에 맞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	22. 줄 간격 및 글자의 크기가 학년 수준에 적절하고 지면 구성(자료배치, 여백, 색조 등)이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아래는 위의 교과서 평가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 가 기 준
교육 과정	① 전체구성체제 ② 교육과정 부합성 ③ 학습분량의 적절성
학습내용 선정	④ 내용수준의 적정성 ⑤ 정확성 ⑥ 중립성
학습내용 조직	⑦ 학습동기유발 ⑧ 연계성 및 계열성 ⑨ 시각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 ⑩ 자기주도적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⑪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성과 실용성 ⑫ 학습 참고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학습 평가	⑬ 다양한 평가활동 ⑭ 종합적 사고능력
표현 표기 및 외형 체제	⑮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⑯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

1. 선생님의 학교에서 채택하여 수업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점인지 위의 평가기준에서 골라 번호로 표기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기타 : _____

2. 선생님의 학교에서 채택하여 수업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점인지 위의 평가기준에서 골라 번호로 표기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기타 : _____

3. 선생님의 학교에서 채택하신 국어 교과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4. 만약 새로운 검정 국어 교과서를 선생님께서 제작하시거나 채택하신다면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지 위의 평가 기준에서 골라 번호로 표기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기타 : _____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